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배포일자	2022년 9월 4일(일) 총 4매	
담당 부서	복지서비스과	담당자	• 통합돌봄팀장 이현경 ☎440-1551 • 담당자 김용훈, 송영미 ☎440-1552~3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입소 없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  
 - 원스톱 공감돌봄상담창구, 군·구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 등 -  
 - 돌봄 사각지대 발굴과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 노력 -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아동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지역실정에 맞는 돌봄체계 마련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설입소 없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내면서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노인인구가 2021년 41만6천명(14.2%)에서 2027년 62만1천명(20.7%)으로 늘어나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1인가구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가족부양의무 인식약화 등 가족중심의 돌봄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지역의 돌봄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탈시설, 지역

돌봄 등 복지환경의 변화와 돌봄의 적시성 부족에 따라 효과적인 돌봄정책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인천’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전달체계 혁신 및 돌봄사각제로 추진 ▲통합돌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민·관 협력 네트워크 조직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9대 실천과제로, ① 원스톱 공감돌봄상담창구 설치·운영, ② 시민지원단 활동가 양성, ③ AI 케어콜 돌봄서비스 지원, ④ 사서원 종합재가센터 확충,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⑥ 군·구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 ⑦ 돌봄욕구조사 및 서비스 개발 연구, ⑧ 민·관 협력 다(多)직종 거버넌스 구성, ⑨통합돌봄 추진단 활성화로 정해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원스톱 공감돌봄상담창구’를 곳곳에 설치해 예방적 돌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돌봄상담창구는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155개 읍면동 및 20개 사회복지관 등 총 175개소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돌봄 매니저가 돌봄서비스 종류 및 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게 된다. 그동안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소, 복지관 등 각 기관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기존에 노인·장애인으로 한정해 서비스 되던 보건복지부의 돌봄

서비스 수혜대상에 아동을 포함해 ‘인천형 통합돌봄’으로 확대하는 것도 특징이다. 시는 ‘군·구 통합돌봄 시범사업’으로 아이돌봄, 식사·영양, 이동·동행, 집수리, 방문건강 등 지역 특화형 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가돌봄서비스를 보충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세심하게 돌보는 ‘돌봄 내실화’에도 힘을 예정이다.

통합돌봄 사업에는 시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는 시민지원단 활동가를 양성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일상생활 영역까지 시민이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를 추진하고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의 통로를 확대해 나간다. 그 밖에도 통합돌봄 정책이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으로써 지역 내 안착할 수 있도록 시민의 역량과 참여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중증대상자 중심의 시설보호가 아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민 누구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신속하고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의 돌봄 역량을 집중하는 인천의 핵심 복지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돌봄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로 시민이 행복한 인천, 공감복지공동체 인천을 구현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통합돌봄 사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수립과 기반을 구축해 2026년부터 보편화할 계획이다.

## 참고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안)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아동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지역 주도형 돌봄 정책 추진(시설중심 → 지역사회 돌봄 체계 전환)  
※ 통합돌봄 : 원스톱 서비스 게이트웨이(gateway)

### □ 기본계획 개요

- (추진기간) '23년~'26년 ※ '25년까지 제공기반 구축, '26년부터 보편화
- (핵심요소)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① 주거	② 건강의료	③ 요양·돌봄	④ 서비스 연계
-케어안심주택 -집수리 사업 -통합돌봄형 도시재생뉴딜	-방문건강서비스 -방문의료 -지역연계실 운영 -만성질환 예방·관리, 재활, 회복	-차세대 노인장기 요양 -신규 재가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신설	-통합돌봄상담창구 (읍면동, 보건소 등) -지역케어회의(군구)

<보건복지부 가이드북 참고. '20.7월>

- (정책대상) 146천명(노인·장애인·아동) ※ 市인구대비 약 5%
- (전략과제) 3대 전략 / 9개 과제

### 3대 전략

① 전달체계 혁신  
및 돌봄사각제로  
추진

② 통합돌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③ 민·관 협력  
네트워크 조직

### 9개 과제

- ① [신규] 원스톱 공감돌봄상담창구 설치·운영
- ② [확대] 시민지원단 활동가 양성
- ③ [확대] AI 케어콜 돌봄서비스 지원
- ④ [확대] 사서원 종합재가센터 확충
- ⑤ [확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 ① [확대] 군·구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
- ② [신규] 돌봄욕구조사 및 서비스 개발 연구

- ① [신규] 민·관 협력 다(多)직종 거버넌스 구성
- ② [확대] 통합돌봄 추진단 활성화